

SK에너지, 울산공장 재가동

12월6일 가동중단 이후 정상화 ... 전체 피해액 1000억원

SK에너지 울산공장이 정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12월9일 재가동을 시작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2월6일 한국전력 변전소의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대부분의 생산설비들이 가동을 중단했다.

SK에너지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공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이 중단된 바 있다.

정전 피해가 컸던 정유공장에 이어 석유화학공장도 재가동하기 시작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정전사고 이후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효성 용연공장은 전체 5개 공장 가운데 12월9일 현재 3개 공장만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12월14일 모든 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전사고로 총 62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9>